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东西大新聞

제187호 2023년 4월 3일 월요일

건학이념
기독교정신의 구현

교 훈
진리·창조·봉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 : 1

The Dongseo University Press

발행·편집인 장제국 / 주간교수 오종서 / 편집국장 김규리 / 동서대신문사 617-716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산 69-1 TEL.(051)320-2141 FAX.(051)320-1361 / 인쇄처 부산일보사 (월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대학

20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대학 선정

▶벚꽃 명소라 불리는 우리 대학 풍경

우리 대학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즉 IEQAS(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에 선정됐다.

우리 대학은 201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 최초 선정된 이후 계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화 선도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서 2026년 2월까지 이 역량 인증을 유지하게 된다. 인증 유지 기간은 2026년 2월이지만 매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유지 여부 심사를 받으며, 기준 미충족 시 인증이 박탈된다.

이번 평가는 불법체류율, 중도 탈락률, 유학생 언어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해 정량지표 심사와 대학 국제와 추진 실적 관련 정성 지표 평가, 위원회 심의 등의 단계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정부 초청 장학생 수학 대학 선정 시 가산점 부여 ▲해외 한국 유학생 박람회 개최 시 참여 우대 ▲외국인 유학생 선발 자율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추가적으로 우수 인증 대학의 경우 ▲사증 발급 간소화 대상 국가 확대 ▲정부 초청 장학생(GKS) 수학 대학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더해진다.

또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등 교육부 공식 사이트에서 11개 언어로 국내외에 공개되며, 법무부 및 외국 정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명단이 제공된다.

이런 혜택들로 인해 대학들은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하면서도 인증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제도는 고등 교육기관의 질을 관리하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교육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국제화 역량을 갖춘 대학을 인증하는 것이다. 고등 교육의 국제적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 국제화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5년 'Study Korea Project'를 통해 국제 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유입 유학생의 수는 증가했지만, 질적인 인프라 구축 노력과 관리에서 한계점이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제도다. 2012년 시범 사업 이후 2013년 본격적으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교육부의 노력 아래 우리 대학은 69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온 1,000여 명의 다국적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공부하는 글로벌 캠퍼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광범위한 다양성이 우리 대학을 문화나 언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과 영량을 채우기 좋은 학교로 만든다.

우리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경험을 주고자 주거비부터 해서 등록금 전액 장학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또 외국인 유학생 관련 시설인 International College를 통해 교육 과정이 영어로 운영되는 학부의 유학생들이 원활하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년도에도 신입 외국인 유학생을 환영회 및 입교식인 'Welcoming Ceremony'가 개최됐다. 입교식에는 외국인 유학생과 더불어 한국 학생, 디자인대학 소속 공동교육과정생 47명을 포함해 약 450여 명이 참여했다.

장제국 총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힘든 가운데 다양한 교육 모델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유학생 관리의 질적 제고를 위해 힘쓴 결과, 다시 한번 우리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수 유학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글로벌 대학으로의 위상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기자
0rlarbfl@gmail.com

호치민 대학과도 손잡다!

호치민경제대학과 학술 교류 협정 체결

▶(좌) 장제국 총장과 (우) 수 딘 탄 총장

베트남 호치민시에 소재한 국립대, 호치민경제대학(University of Economics HCMC) 수 딘 탄(Su Dinh Thanh) 총장 일행이 우리 대학을 방문해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호치민경제대학은 1976년도에 호치민시에 설립된 국립중점대학(National Key Universities Vietnam) 중 한 곳이다. 현재 약 3만 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으며, 경제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 베트남 최고 수준의 대학이다.

협정식에는 장제국 총장 및 김정선 총괄부총장, 한경호 국제처장, 안병진 디자인대학 학장, 미디어콘텐츠대학 이동훈 학장, International College 김희경 학장이 참석했다. 베트남 호치민경제대학에서는 수 딘 탄 총장, 느웬 칵 꾸억 바오(Nguyen Khac Quoc Bao) 부총장과 College of Technology and Design 박영준 명예학장(前 지식경제부 2차관) 등 대학 관계자 뿐만 아니라 호치민 시립 발전공사(Ho Chi Minh City Power Corporation) 팜 꾸억 바오(Pham Quoc Bao) 사장 및 느웬 두이 꾸억 비엣(Nguyen Duy Quoc Viet) 부사장이 참석했다.

또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함과 더불어 교육, 학술, 문화 등 다양한 협력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 대학은 공동 관심사인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의 공동 교육 과정 설립에 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실질적인 협력에 주목하기로 했다.

우리 대학과 호치민경제대학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 관련 분야에 대한 학술 및 연구 자료가 합쳐지면 경쟁력을 제고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술 교류 협정식 이후 베트남 방문단은 캠퍼스 투어 및 특성화 학문 분야 시설 투어를 진행했다.

수 딘 탄 총장은 "동서대학교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공동 교육 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제국 총장은 "동서대와 호치민경제대학 간의 다양한 형태의 교육 협력을 기대한다"며, "동서대의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미래형 교육 모델을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규리 기자
0rlarbfl1@gmail.com

해외와 손잡고 발전하다!

주한 외국 대사관의 방문 소식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 접견

▶주한 미국 대사 접견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주한 대사관에서 우리 대학과의 협력과 상생을 얘기하고자 방문했다.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관의 리차르다스 쉴레파비치우스 대사, 아스타 슬라빈스카이테 경제 공사 참사관, 안드리우스 샌카우스카스 상무관이 우리 대학을 방문해 장제국 총장과 동서학원 박동순 이사장을 접견했다.

쉴레파비치우스 대사는 이번 부산 방문에서 주례 캠퍼스와 센텀 캠퍼스 내의 특성화 분야와 인프라 시설을 견학했다.

우리 대학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을 견학하며 리투아니아 현지 대학들과의 다양한 교육, 연구, 문화 교류 협력에 우리 대학이 앞장서서 이끌어 주기를 기대했다.

장제국 총장과 박동순 이사장을 접견한 후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14명의 리투아니아 국적 학생들과 피자 런치 파티를 가졌으며, 먼 타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리투아니아 학생들을 격려해 줬다.

식사 자리에 함께한 리투아니아 국적 학생들은 우리 대학과 리투아니아 현지 미콜라스 로메리스 대학(Mykolas Romeris University) 간의 공동 교육 과정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로서, 게임학과와 영상애니메이션학과에 재학 중이다.

우리 대학과 리투아니아는 인연이 깊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미콜라스 로메리스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의 복수 학위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미콜라스 로메리스 대학과의 복수 학위 과정은 우리 대학이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교류가 어려웠던 지난 상황에서도 다수의 복수학위자를 배출했다.

이외에도 작년 9월에는 미콜라스 로메리스 대학의 잉가 잘레니에네 총장에게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도 했다.

리투아니아와 우리 대학의 교육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방문 이후 장제국 총장은 "동서대학교는 리투아니아의 명문 국립 대학교인 미콜라스로메리스대학과는 디지털콘텐츠 분야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라투아니아 수도인 빌뉴스에 세종학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십여 년 간의 긴밀한 협력이 잘 이어져서 뿌듯하다. 리투아니아와의 더욱 다양한 협력을 기대한다"며 우리 대학과 리투아니아의 상호 협력 관계에 대해 얘기했다.

다음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의 로버트 포스트 공공외교 참사관과 크리스틴 푸트 공공외교 담당관, 최숙정 공공외교 보좌관과 함께 부산 미국 영사관의 놀란 바크하우스 영사관, 변정환 수석고문, 일행이 우리 대학을 방문했다.

우리 대학에서는 장제국 총장과 함께 김정선 총괄부총장, 한경호 국제처장이 참가했다.

양 측은 글로벌 고등 교육 현황에 대한 논의와 함께 우리 대학 학생들이 국제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및 교류 시스템 구축에 관해 얘기하며 더욱 활발히 협력하자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후 로버트 포스트 공공외교 참사관과 놀란 바크하우스 영사는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10명의 다국적 학생들과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다양한 대사관 프로그램, 외교 업무, 한미 관계 등 국제적이고 심도 있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우리 대학은 SAP 미국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00여 명의 학생을 미국으로 파견하고 SAP-Global에 참여하는 등 미국 대학 및 기관들과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접견을 통해 우리 대학은 해외 교육 및 취업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게 됐다.

우리 대학은 5년 연속 해외 취업 운영기관 평가 A등급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해외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활발한 교육과 운영을 통해 우리 대학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리기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

김규리 기자
0rlarbfl1@gmail.com

학생들을 위해 큐칼리지가 흘린 땀

협회 및 기업과 업무 협약 체결

▶필굿 업무 협약 체결식

우리 대학 큐칼리지가 교내 프로그램 및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회 및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첫 번째로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지회와 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큐칼리지 곽준식 학장과 이성경 교수,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부·울·경 지회 오몽석 지회장과 정재광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마케팅 전문가 양성 교육 ▲프랜차이즈 마케팅 컨설팅 ▲토종 프랜차이즈 브랜드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 협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큐칼리지 곽준식 학장은 "요즘 학생들이 프랜차이즈 창업 등에 관심이 많은 만큼 협회와 함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맥도날드, 스타벅스와 같은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작은 매장에서 시작해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으로 에듀테크 전문 기업인 ㈜필굿과 에듀테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소식이다. 필굿은 게임형 디지털 지능 검사인 'K-PASS'를 운영하는 에듀테크 회사로, 미래 교육 문화 혁신을 이끌어 가는 기업이다.

협약식에는 큐칼리지 곽준식 학장과 김현옥 교수(IPP형 일학습 병행 사업단)와 필굿의 임유하 대표 및 회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에듀테크 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에듀테크 교육 문화 정착 지원을 위한 마케팅 컨설팅 ▲에듀테크 교육 문화 역량 지원을 위한 산학 협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큐칼리지 곽준식 학장은 "최근 게이미피케이션(게임 활용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측정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 3D 게임형 디지털 K-PASS를 개발한 필굿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 큐칼리지가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툴을 만들 계획"이라고 학생들의 편하고 즐거운 학습을 위한 목표를 설계했다.

김규리 기자
0rlarbfl1@gmail.com

글로벌 시대에 맞춰 발돋움하다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 20기가 비상하다!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 20기 발족

▶우리 대학 International College

International College는 지난 3월 2일(목)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 20기 입회식을 진행했다.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Dongseo Global English Program)은 영어와 전공역량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입생들 중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1년간 집중적인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International College가 주관하고 있다. 영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발음, 어휘,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으며, 해외 대학에서 유학하는 것만큼의 영어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2023학년도에 선발된 학생들은 입회식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후 소그룹으로 나뉘어 분반별로 원어민 교수들로부터 영어 수업을 받게 되며, 학기당 9학점씩 1년동안 총 18학점을 취득한다. 또한, 영어뿐 아니라 전공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학부기초(전공)도 최대 3과목(9학점)을 수강할 수 있다. 평균평점 3.5이상 학생 전원에게 모범장학금을 수여하며 프로그램 수료 학생에게는 총장 명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전공 필수 교과목을 추가로 듣고 싶은 학생은 수강신청시 최대학점(20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에는 매년 2학기에 일본 아시아대학 학생들이 참가해, 함께 수업을 듣고 영어와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키울 수 있다. 2023년부터는 디자인전공 학생들의 영어역량 강화를 위해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와 협력해 전공 맞춤형 영어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래로는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의 소감이다.

김서현(디자인학부) : 외국 친구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으나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겠고 회화에도 자신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회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교수님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어휘력 부족으로 조금씩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비슷한 단어를 최대한 찾아가며 말하다 보니 영어가 조금은 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안유빈(광고홍보학과) : 영어프로그램이 원어민 교수님께서 수업을 이끌어나가신다는 점이 매우 특색있게 다가왔습니다. 이제껏 입시를 하며 영어라는 과목을 정형화된 수업을 통해 접해왔지만 활동을 통해 조금 더 색다른 방법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다양한 방면으로 언어를 배움으로써 생각과 사고의 폭을 넓히고 영어를 접하는데 있어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며 스스로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글로벌영어프로그램 수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원어민 교수님과의 수업을 통해 기존의 입시영어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할 수 있어 흥미로웠고, 교수님이 학생들의 역량을 고려하며 적절한 수준으로 수업을 이끌어주셔서, 영어가 부담되거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 수업 과정에 오로지 집중하면서 실력을 쌓아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팀 활동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수업에 임할 수 있어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생겨 회화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영(디자인학부) : 대학교 오면 영어를 별로 안 하게 될 것 같아서 영어 접근을 높이고 회화를 키우기 위해 참여하게 됐습니다. 원어민과 대화하는 게 거의 처음이라 많이 걱정도 하고 떨리기도 했는데 교수님분들께서 떨지 말라고 편안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발판이 돼 더 잘 말하고 수업의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영어 자체는 싫어했는데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선호도도 높아졌습니다. 따로 영어공부도 할 정도라 안 했으면 진심으로 후회했을 것 같아요.

변지혜(디자인학부) :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 내가 영어를 듣고 문제를 푸는 것 외에 얼마나 말할 수 있고 읽고 쓸 수 있는지 알아보고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공부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문제 풀 때는 몰랐던 단어들의 발음 및 문장을 쓸 때의 주의할 점을 알 수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꿈을 현실로 만드는 리더가 되자

‘STEP 리더십을 꿈꾸다’ 정영호 총영사 특강 개최

▶정영호 총영사 특강 개최

지난 2월 28일(화) 우리 대학과 자매를 맺은 대학교인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San Antonio) 소재 세인트 메리 대학교(Saint Mary's University)의 임성배 교수가 진행하는 유라시아 공동체 초청 강좌에서 주미 휴스턴 대한민국 영사관의 정영호 총영사가 현지 대학을 방문해 강연을 했다.

이날 정영호 총영사는 STEP(Servant, Transformational, Ethical, Public)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의를 하는 중 틈틈이 학생들에게 STEP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도덕적인 삶의 자세가 몸에 배어야 한다고 전했다.

Servant는 하인, 즉 낮은 사람이 아닌 훌륭한 인적 자원이 되는 존재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Transformational은 변혁, 즉 기존의 틀을 온전히 깨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강조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문화적인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라면 그에 맞는 윤리적 가치관(Ethical)이 바탕이 돼야 할 것이며,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아닌 공공(Public)을 위한 가치관에서 모두에게 최선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연 이후에는 앞서 특강에 참여했던 우리 대학의 학생들을 초청해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이때 정 총영사관은 “이번에 하는 미국 연수 경험을 그저 일회성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정말 미국에서 경험한 생활과 배움을 발판으로 크게 퀀텀점프 해야 한다. 중단 없는 도전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인물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호 총영사는 뉴브런즈윅신학교 대학원 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수석 부대변인도 역임했다. 또한 그는 47세에 신학을 공부해 미국에서 목회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정 영사관은 리더십에 대해 깊은 고찰을 하며 많은 공부를 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총 리더십 관련 4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준비 위원회 전문위원 겸 대변인인수위원회 전문위원과 대변인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 1월 초에 주미 휴스턴 총영사관으로 부임했는데, 여전히 겸손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많은 신망을 얻고 있는 인물이다.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수업을 게임처럼 즐겁게 하는 방법

신입생들을 위한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워크숍 개최

▶3월 2일 운동장에 모두 모여 입회식 진행

우리 대학의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는 지난 7일 디자인학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창의 훈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와 디자인대학의 주관으로 올해 새롭게 입학한 1학년 신입생들 간의 팀워크를 통한 창의성을 발휘함으로써 신입생들의 역량을 높이는 훈련을 목적으로 우리 대학의 캠퍼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하듯 진행되는 형태다.

행사 순서는 디자인대학의 교수진들의 소개를 시작점으로 해서 디자인대학 내의 전공들을 소개하고 졸업생들의 인사말을 담은 영상을 상영했다. 또한 글로벌 집중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앞으로 신입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협력 활동을 통해 처음 만나는 신입생들 간의 친밀도를 높여 워크숍의 참여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본 워크숍은 미리 사전에 구성된 33개의 조를 중심으로 각 조의 팀원들 간 상호적으로 어색한 분위기도 깨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인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작으로 오전과 오후에 각각 2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오전에는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게이미피케이션’의 빅게임을 중심으로 우리 대학의 캠퍼스 곳곳을 돌아다니며 준비돼 있던 퀴즈를 풀고, 이를 통해 우리 대학 캠퍼스 내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신입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했다.

또 퀴즈를 통해 획득한 보상을 통해 본 게임의 재화 및 정보를 습득하여 신입생들끼리의 서로 간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의 게임을 진행했다.

본 게임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팀원뿐만 아니라 그룹 간의 소통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며 처음 만나 어색한 소통의 분위기를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앞서 오전에 진행한 빅게임을 통해 돈독해진 팀원들 간의 협력 및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해서 상호 간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게임을 진행했다.

해당 게임을 통해 학생들은 하나의 문제를 팀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기를 수 있으며, 특정 문제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학생들 각자가 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해 이를 전달하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활동으로 기획했다고 한다.

이날 모든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 신입생들은 “특히 우리 대학의 캠퍼스 전체를 여러 번 돌아다니며 각 건물별 이름은 물론이고 각 강의실의 위치를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고 언급했으며, “제일 신나는 것은 처음 만나는 동기들과 어색해지지 않도록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 매우 쉽게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 좋았으며,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퀴즈를 통해 풀고 맞추고 틀리는 것을 반복하며 자연스럽게 우리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어서 매우 만족했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본 워크숍은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소속 연구원들과 디자인대학의 교수, 직원들과 총학생회의 운영으로 진행됐었고 약 200명가량의 디자인대학 1학년 신입생들이 참여해 동기들과 선배들 그리고 우리 대학에 대해 서로 소통하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끔 만든 자리였다.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는 아시아, 한국, 부산이라는 지역성을 특성화 연구의 기반으로 삼고 과거 전통의 시점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디자인 실행을 통해 지역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설립됐다.

특히 서구에서 생산된 이론과 방법론이 아닌 아시아와 한국 문화 예술 기반의 한국적 디자인 교육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과 아시아의 디자인 문화를 주제로 하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디자인연구와 디자인교육의 독창성과 주체성을 담보하고, 생성한 연구를 교육에 적용하는 연구소 중심의 ‘연구와 교육의 연계’ 순환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는 연구를 생산하는 ‘연구기획부’와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교과교육부’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연구기획부’는 아시아의 관점과 세계적인 관점 기반의 디자인연구와 방법론을 모색하는 ‘디자인인문연구회’와 미래디자인 가치를 지역성에서 찾으려는 ‘지역문화연구회’로 나눠진다.

‘교과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 2019년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 선정으로 별도의 교과 개발팀을 개설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생성된 연구결과물은 디자인 교육에 적용되며, 학내외 학술포럼과 출판물을 통해서도 발신·교류하고 있다.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창업에도 강한 학생을 만들겠다

SW중심대학사업단 설명회와 사업 성황리에 개최

▶SW중심대학사업단 설명회

우리 대학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은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13시부터 UIT 건물에 있는 국제세미나실, 601호, 602호에서 ‘2023학년도 SW융합연계전공 설명회’를 개최했다. SW융합연계전공 설명회에 전공별로 총 391명의 많은 학생이 참석했으며, SW교육센터장 송종근 교수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SW융합연계전공인 AI콘텐츠, 사이버 경찰보안, 인공지능로봇, AI경험디자인, 영어SW융합연계전공, 일본어SW융합연계전공, 중국어SW융합연계전공, XR콘텐츠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새롭게 개편된 교육과정 및 부/복수, MD 이수 방법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설명회에 참석한 1, 2학년 학생들에게 SW중심대학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들도 함께 소개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39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절반 이상(58.3%)이 SW융합연계전공 진입을 통해 SW융합연계 학위과정 및 전공에 대한 관심,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80% 이상 이번 설명회를 통해 SW융합연계전공 관심도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본 설명회를 통해 SW중심대학사업단장 문미경 교수는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SW융합연계전공 학위 과정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희망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해 SW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밝혔다.

또한 이번 학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 총 10회 진행되는 AI, SW, 창업 릴레이 특강이 SW중심대학사업단 주최로 열린다. AISW창업 릴레이 특강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청년과 예비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노하우를 전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3월 21일에 첫 특강이 오프라인으로 개최됐으며, DEV202호 강의실에서 풍성한 정보와 노하우가 전달됐다.

첫 번째 특강의 강연자로 나선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한이 매니저는 청년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국가지원사업 혜택과 창업 노하우를 공유하며 관심 있는 참가자들로 가득 찬 강의실에서 강의를 이끌었다.

이날 강의실은 참가자들로 인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다.

이로써 이번 특강 시리즈는 성황리에 첫 스타트를 끊어낼 수 있었다.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이번 특강 시리즈는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과 예비 창업자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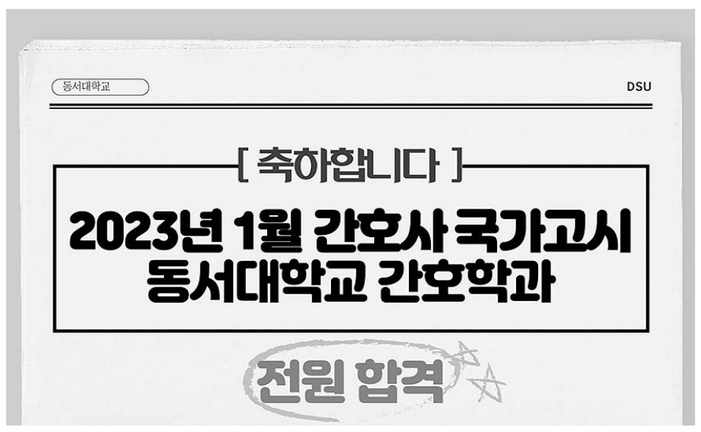
대학 홈페이지 또는 학사 게시판에서 다음주 특강 일정과 주제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하면 좋겠다.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건학 정신으로 전원합격의 꿈을 이루다!

제63회 간호사국가고시 100% 합격 쾌거 이뤄

▶간호학과 졸업식



▶국가고시 전원합격

2009년 봄, 사랑을 실천해나가는 과학과 예술의 '간호학'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우리 대학의 간호학과는 기독교 인성을 갖춘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해 인류와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에 대한 특성을 살려 학생들을 지도하고 육성하고 있다.

또 기독교 정신과 간호 철학을 바탕으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치료적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전문 간호인들을 양성해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우리 대학 간호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위한 근거 중심의 전문지식 및 실무기술 함양을 위한 방향성으로 먼저 우수한 교수진이 분포돼 있으며 다양한 교수학습 체계와 첨단 실습 기자재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랩, 특수 임상현장에 대한 실습 환경 및 산학 협력 학습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을 지향하는 우리 대학의 가장 큰 자랑 중 하나인 미국, 호주 등의 해외 자매대학들, 동서 어학센터의 첨단 어학 장비와 원어민 교수진, 미국 의료기관에서 임상경력을 갖춘 교수진들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국제적인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 간호학과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은 대학의 건학 이념인 기독교 정신과 소위 '나이팅게일'로 잘 표현되는 간호 철학을 융합해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치료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자의 건강 및 안녕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통합적 간호 지식과 숙련된 간호실무 기술을 바탕으로 전인 간호를 실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자기조절 능력과 소통 및 협동능력을 함양해 변화하는 간호환경에 적응하고 문제해결 능력과 국내외 보건 의료정책 변화 대응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또, 인간존중과 전문 직관을 바탕으로 돌봄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8가지 학습에 대한 성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교양 및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통합적으로 해석한다. ▲대상자의 간호 상황에 따른 핵심 간호술을 선택하고 수행한다. ▲자기개발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대외 환경에 적응한다. ▲건강문제 해결과 조정을 위한 의사소통 및 전문분야 간 협동을 수행한다.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 적용 및 임상적 추론을 수행한다.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인지 및 간호현장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한다. ▲소명의식과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돌봄의 가치를 실현한다. ▲간호전문직 표준과 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고 실무에 통합한다는 가치를 실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쾌거가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2013년에 38명의 첫 졸업생들을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졸업생 모두가 국가고시에 합격했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이다.

또 올해 1월에 공개된 대학정보공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대학 간호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93.7% 전국 5위로, 창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에 이어 높은 졸업생 취업률을 보였고 부산시 소재 대학교에서는 1위를 차지하게 됐다. 전국 5위, 부산 1위라는 성과는 매우 영광스러운 결과다.

간호학과는 전국에 총 203개의 대학에 개설돼 있으며, 2년제인 전문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에서 개설된 간호학과는 총 116개다. 본 취업률은 대학에서 개설된 116개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도 하다.

본 결과는 부산시에 있는 다른 간호학과들과는 현격히 차이가 날 정도로 뛰어난 성적이다. 부산시에 소재하는 주요 대학교의 간호학과 취업률과 취업순위는 ▲고신대(87.6%, 19위), ▲부산가톨릭대(85.3%, 44위), ▲동아대(81.3%, 81위), ▲인제대(78.9%, 96위), ▲경성대(78.7%, 98위), ▲부경대(75.6% 109위), ▲동의대(75.5%, 110위), ▲부산대(75.3%, 112위)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생들은 서울·경기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동남권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주로 취업하고 있다.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BLS(기본 심폐 소생 과정), KALS(전문 의료인 심폐 소생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해외로 취업하고 싶다면? 우리 대학으로

해외 취업 운영 기관 평가 5년 연속 A등급 이뤄

▶K-MOVE 스쿨 캠프

우리 대학이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3 해외 취업 연수사업 K-MOVE 스쿨' 5개 과정 운영기관에 11년 연속 선정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사업인 'K-MOVE 스쿨' 사업은 해외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희망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사업이다.

우리 대학은 전국에 있는 대학 중 최초로 선정된 K-MOVE 스쿨 운영기관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된 5개 과정 중 4개 과정이 우수과정으로 승인받았다.

올해 운영되는 과정은 패션디자인학과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연수를 받게 되는 ▲패션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 디자인대학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연수를 받게 되는 ▲그래픽디자이너 양성과정, 국제, 경영, 영어, DIS, 광고홍보학과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연수를 받게 되는 ▲무역물류프런티어 양성과정,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연수를 받게 되는 ▲IT융합엔지니어 등 우수과정 4개, 그리고 소프트웨어융합대학과 일본어학과를 대상으로 일본에서 연수를 받게 되는 ▲IT 엔지니어 일반과정 1개 등 총 5개다.

3월부터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K-Move 스쿨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할 예정이고, 4월 16일 일요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K-MOVE 스쿨에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교육비와 교재비 전액, 자격증 시험 응시료, 항공료, 홰외 취업 알선, 비자 수속비(일부) 지원, 체제비(일부) 지원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며 해외취업정착지원금으로 5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180~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이들은 올해 6월 22일부터 내년 1월 19일 또는 2월 29일까지 어학, 직무, 교양, 실무 교육 등 과정별 맞춤형 연수 과정을 수료한 뒤 미국, 일본의 현지 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지원 자격으로는 관련 전공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2023년 8월 또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2023년 2월 졸업자)이다.

5월 초에 면접을 진행하고 중순에 바로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 6월 초에 공식 OT를 가질 계획이다.

정도운 학생취업지원처장은 "The Only One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의 대학 교육목표를 실현하며 대학의 역량을 집중해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 한 걸음 더 성장!

창업과 교육을 선도하는 우리 대학

▶네트워킹 데이 현장

2023년의 시작부터 창업과 AI 교육을 위해 창업지원단과 SW중심대학사업단에서 네트워킹 데이를 가졌다. 초기 창업 기업과 학생들을 위한 네트워킹 데이, 그 소식을 전하려 한다.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이 이번에도 '졸업기업 네트워킹 데이'를 무사히 마무리했다.

'졸업 기업 네트워킹 데이'는 초기창업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초기창업 패키지 졸업 기업과 2022년 선정 기업, 창업지원단 협력 기업 등 30여 개 기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됐다.

초청 강연자로 나선 스타피쉬Lab 박은빈 대표는 스케일 확대를 위한 핵심 지원사업 안내 및 후속 연계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설명해 줬다.

우리 대학 협력 기업인 ㈜아이오티플렉스 박문수 대표는 기술 기업 창업 기업의 성공 전략에 대해 자신이 아는 비법들을 아낌없이 전수해 줬다.

또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도 창업 기업들의 자금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상담을 진행해 줬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부산창업기술협회'를 중심으로 해 향후 산학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다짐했다. 창업기술협회 초대 회장인 ㈜골드브릿지 염주호 대표는 "초기창업 패키지 사업을 통해 선정 기업들이 큰 성장을 이뤄냈다. 협회를 통해 동서대학교와 산학 연계를 지속적으로 도모한다면 이후 다른 기업들도 큰 성장의 폭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동반 성장을 다짐했다.

창업지원단 정도운 단장은 "동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창단 이래 다양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기업들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했다. 이번에 창업기술협회의 구축으로 교육, 지원, 투자라는 연계 협력 키워드를 통해 초기 창업 기업의 더 큰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본 행사에 참석한 LINC 3.0 사업단 황기현 단장은 "창업지원단에서 배출한 우수한 창업 기업들이 지역 내 산학 협력 연대 관계를 끈끈하게 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 체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지를 다졌다.

우리 대학은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창업 선도 대학, LINC 사업,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 대학, 초기 창업 패키지 등 다양한 국책 사업에 참여했고 업무를 수행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지난 2022년까지 140여 개의 초기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했다. 우리 대학의 명성이 지속되도록 올해도 아낌없는 지원을 쏟을 예정이다.

다음으로 SW중심대학사업단의 AI 네트워킹 데이 소식이다.

우리 대학 SW중심대학사업단에서 'Woekshop for Quantum Computaton and Quantum Information'을 주제로 AI 네트워킹 데이(양자 컴퓨팅 기술 워크숍)를 진행했다.

지역의 산업체들이 가진 현안에 대해 해결 방법을 찾고, 대학의 연구 결과로 도출된 첨단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정기적인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고등과학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등의 연구소 및 기관과 수도권의 대학들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에서 물리, 수학, 컴퓨터 등 여러 전공 분야의 교수님들이 참여해 상호간의 기술 교류를 위한 열띤 토론과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네트워킹 데이에서는 ▲고등과학원 김재완 부원장의 <양자! 나노와 디지털을 넘어> ▲명지대학교 원용욱 교수의 <양자암호키 유무선 전송 기술> ▲국민대학교 윤상민 교수의 <양자 영상 처리> 등과 같이 현재 뜨겁게 연구 중인 양자 기술의 응용 분야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또 직접 눈으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된 상세한 해설로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하고, 그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현장이 됐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김남우 교수는 "꿈의 컴퓨팅이라 일컬어지는 양자 컴퓨팅과 같이 차세대 ICT 원천 기술의 선도적 기술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의 산업계에 그 혜택을 제공할 기회로 이어지는 네트워킹 행사의 모범 사례로 발전시키겠다"며 소감을 말했다.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네트워킹 데이인 만큼 좋은 성과물을 얻어 지역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김규리 기자
0rlarbfl1@gmail.com

■ 취업 책 소개 – 간호학과

간호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생들에게

▶보건학과 공중보건학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보건·복지 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나고, 보건 의료 기관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 행정 책임자를 요구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가와 함께 보건 전문인 대한 수요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학이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다. 여러 사람을 만나 그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줘야 하므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다. 또한 상황 판단력과 순발력이 필요하다. 상담, 심리 등에 관한 지식과 기본적인 의료 상식이 있어야 한다. 안전이나 위생을 잘 이해하는 학생에게도 적합하다.

이 학생들이 보건학과를 전공하게 되면 보험, 기업체, 제약회사, 보건 의료 분야의 언론사 등의 기업체에 취업하게 되거나 보건 관련 연구소, 보건 산업 관련 연구소 등의 연구소에 취업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일반행정직 공무원), 건강 보험 관련 공공기관 등의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건학 중에서도 하나인 공중보건학이 있다. 공중보건학은 인류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실천하는 생명과학이다. 공중보건학과는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전문화 돼 가는 추세를 반영하고 21세기에 들어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가와 함께 보건 전문인 대한 수요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공중보건학과 졸업 후 직업 분야로는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분야로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한 첫 직장에 대해 54.2%가 보통 한다고 답변했고, 54.2%가 보통 한다고 답변했다.

공중보건학과 졸업한 학생들은 의무기록사, 보건위생 및 환경검사원, 위생사, 병원코디네이터, 공무원(환경 및 보건직) 등의 분야로 진출한다. 공중보건학과 졸업 후 첫 직장 월평균 임금은 144만 원이고, 101~150만 원 임금을 받는 사람이 가장 많다.

공중보건학과의 전국 지원자는 22,593명으로 그중 3,889명이 입학하였고, 그중 남성은 34.6% 여성은 34.6%이었다. 공중보건학과 졸업 후 71.0%가 취업했고, 71.0%가 진학을 선택했다. 공중보건학과는 조금 다른, 보건행정학도 있다. 보건행정학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보건행정학과는 국가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건강 유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지식을 탐구하며 보건 행정의 전문인력 양성에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 병원경영전문가, 병원행정사, 보건 및 일반행정직공무원, 보건의료 연구기관종사자, 행정학연구원 등, 환경 관련 기관종사자 등의 관련 직업이 있다.

이 직업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관련 자격이 있는데, 병원코디네이터, 의무기록사 등이 대표적인 관련된 자격들이다. 이 외에도 병원 재무관리론, 보건 경제학 등이 보건학과 속의 교과목들이다.

마지막으로 간호학과 관련 취준생들이 이 책을 읽고 취업이나 관련 직종을 구하는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김우진 수습기자

책 속의 풍경 - 불편한 편의점

힘든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내미는 악수

• **책 제목 :** 불편한 편의점
• **책 저자 :** 김호연
• **출 판 사 :** 나무옆의자

'세상엔 사정없는 집안이 없다'는 말과 같이 우리는 저마다 힘든 싸움을 하며 살아간다. 그러다 서로의 힘듦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렇게 소통의 오류는 생각보다 자주 생긴다. 저마다 하나씩은 이런 경험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불편한 편의점>을 쓴 김호연 작가는 '여느 평범해 보이는 집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기막힌 사정이 하나씩은 있다'고 얘기한다. 책 안에서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평범해보이는 집'의 여러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집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 준다.

교사 생활을 명퇴하고 Always라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염영숙 여사는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에서 자신의 중요한 물품이 가득 든 파우치를 잃어버린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자신의 치매를 걱정하는 중 낯선 전화가 걸려 오고, 말이 어눌한 남자가 파우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다. 염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서울역으로 향한다. 도착해보니 덩치가 큰 노숙자가 다른 노숙자들로부터 자신의 파우치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어눌한 말로 염영숙 여사의 주민번호까지 확인한 후 파우치를 돌려줬다. 답례로 현금을 주려 하였으나 노숙자 사내는 한사코 거절했다.

그런 정의로운 마음을 응원하고 싶던 염 여사. 그녀는 자신의 편의점으로 그를 데려와 도시락을 주고 언제든 와서 도시락을 먹어도 된다고 한다. 그러나 노숙자는 판매 도시락이 아닌 매일 폐기 시간에 맞춰와서 폐기 도시락을 받아먹고 갔다. 본인의 이름도 과거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을 독고라 소개하는 덩치만 큰 노숙자이지만 염 여사는 그가 경우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 때, 구하기 힘든 야간 아르바이트생 성필 씨가 그만두게 된다. 염 여사는 본인이 야간시간에 전전긍긍 일하다 노숙자인 독고를 고용해 보기로 한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명목으로 염 여사의 편의점에서 오랜 기간 일하고 있는 시현이 독고를 교육하게 된다. 그녀가 그를 처음 봤을 땐 얼굴이 일그러졌다. 퀴퀴한 냄새, 더듬는 말, 해진 옷 등 누구든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었다. 사실 그렇게 일을 할 수는 없었다. 염 여사는 독고가 머리도 자르고, 목욕도 하고, 옷도 사 입게 했다. 이제 독고는 입을 열지 않으면 멀끔한 사람 같았다. 편의점 일도 배우면 배울수록 생각보다 빨리 일이 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니 말 더듬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를 지켜본 시현은 독고가 노숙자가 되기 전에는 한가닥 하는 사람이었을 거라 염 여사에게 자랑한다. 염여사 또한 그저 노숙자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한다.

시현과 교대를 하는 두 번째 아르바이트생, 오선숙여사는 독고가 여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시현에게 독고 뒷담화를 한껏 늘어놓곤했다. 집나간 남편과 골칫덩이 아들도 뒷담화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아들을 무척 사랑하는 마음은 여느 부모와 같지만 소통이 되지 않는 탓에 답답하여 어느 날은 독고 앞에서 눈물을 팡 터뜨리게된다. 독고는 묵묵히 들어줬고, 오여사에게 아들의 이야기도 이렇게 들어주면 좋아할거라 조언해 준다.

노숙자의 신분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독고. 독고 덕분에 편의점 매출도 오르게 된다. 보통 마을에 계신 할머니들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마트에 가는데 독고가 편의점에서 하는 각종 할인을 설명해주고 집까지 배달해준 덕분에 Always 편의점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붐비기 시작했다. 이처럼 이 책에는 손님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다들 처음에는 독고를 싫어했지만 결국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그 과정에서 독고 또한 자신의 과거를 차차 알아가기 시작한다. 과연 독고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책에서는 '행복'을 밥 딜런의 자서전 속 말을 빌려 이렇게 말한다. "행복은 무언갈 얻으려고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행복이라고. 그리고 네가 만나는 사람이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해야 한다"고. 치열한 한국 경쟁 사회에 살다보면 목표를 쟁취하는 것이 행복이라 느낄 때가 있다. 그렇게 싸워 이겨야한다고 우린 배워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행복'처럼 남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그 따스한 행복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정나연 수습기자

이달의 영화 - 어바웃 타임

사랑을 되돌릴 수 있을까?

• **영화 제목 :** 어바웃 타임
• **영화 감독 :** 리처드 커티스

당신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가? 영화 <어바웃 타임>의 주인공 '팀'은 사랑을 위해서 시간을 되돌린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어떤 가치가 있기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요소를 이용하여 사랑을 되찾고자 하는 걸까? 이것은 단순한 로맨스 이야기가 아니다.

평화롭고 지루한 팀의 일상에 재밌는 일이 생긴다.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가문 남자들은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팀은 떨떠름한 반응을 한 채 시간 여행 방법을 듣는다. 방법은 이렇다. 어두운 공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화장실이나 옷장 같은 곳이 좋겠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 주먹도 쥐면 좋다. 집중을 하며 돌아가고 싶은 기억을 떠올리면 된다. 그러면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

팀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그 능력을 '사랑'에 사용한다. 이후 주인공은 자신의 사랑을 찾기 위해 시간여행의 도움을 받아 전진하게 된다.

여름휴가 때 다시 만난 자신의 첫사랑과 잘 되기 위해 시간을 돌려보지만 실패한다. 시간을 돌리기 전, 샬롯이 떠나기 전날 밤 팀은 고백한다. 그러나 샬롯은 거절한다.

"내가 떠나기 전날 고백하기 보단 시간이 많았을 때 고백하지 그랬어"

그 말을 들은 팀은 앞전으로 돌아가 샬롯에게 다시 고백한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그 말 마지막 날에 다시 물어봐 줄래?"

팀은 시간만 돌리면 무조건 사랑이 이뤄지는 줄로만 알았다. 그의 완전한 사랑인 '메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첫사랑에 실패한 팀은 변호사로서 런던에 간다. 아버지의 친구인 '해리'의 집에 살며 로펌 동료 '로리'와 함께 일을 하면서 지낸다. 그러다 블라인드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메리를 만난다. 그녀와 사귀기 위해 여러 번 시간을 돌리고 결국 연애를 하게 된다.

어느 날 로리와 함께 연극을 보러간 팀은 그곳에서 자신의 첫사랑 '샬롯'과 재회한다. 샬롯은 지금의 팀이 마음에 들었는지 유혹을 시도하지만 팀은 거절하고 바로 곧장 잠든 메리에게 찾아가 그녀를 깨워 프러포즈를 한다. 충분히 샬롯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돌릴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러지 않았다. 왜일까?

샬롯이 팀에게 한 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너를 거절하지 않았을 거야."

팀은 샬롯과 잘 되기 위해 몇 번이나 시간을 되돌렸지만 샬롯은 거절을 반복했다. 시간을 돌려서라도 이뤄 질 수 없었던 인연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이 메리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확신할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다.

그 이후로도 많은 사건이 있었다. 자신의 여동생 '킷캣'을 도와주기 위해 시간을 돌리고, 폐암에 걸려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기 이전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시간을 돌린다.

팀은 셋째 아이를 갖게 되면서 아버지를 떠나보내기로 마음먹고 이별을 고한다. 그날 이후로 팀은 시간 여행을 하지 않는다.

영화 <어바웃 타임>의 감독인 '리처드 커티스'는 이 영화를 자신의 마지막 작품으로서 제작했다고 한다. 그로 말할 것 같으면 영화 <러브 액츄얼리>, <노팅힐> 등 대표적인 로맨스 작품을 낸 것으로 유명하다. 그 명작들에 이어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될 <어바웃 타임>까지 대중들에게 아름다운 로맨스 영화를 선사했다. 그는 마지막 작품으로 <어바웃 타임>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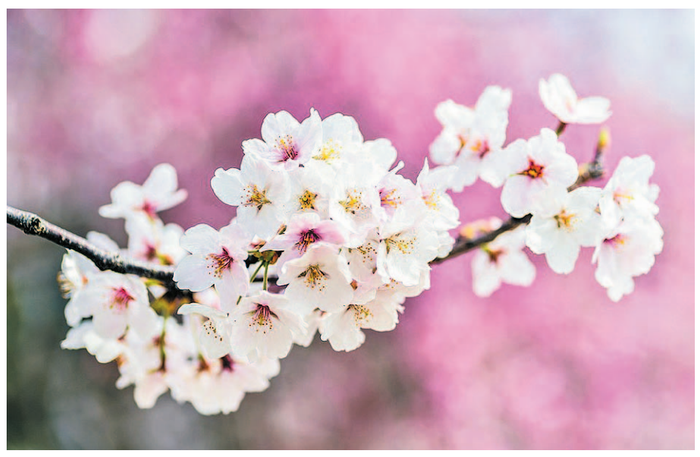
시간 여행을 하면서 팀이 깨달은 것에 담겨 있다고 본다. 팀은 시간여행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자 했다. 시간을 돌려 첫사랑에 실패해 보고, 시간을 돌려 자신의 사랑인 메리와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 메리뿐이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시간 능력을 사용했다.

우리도 시간을 돌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고, 함께하며 사랑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돌릴 수 없다. 한마디로 우리는 사랑을 되돌릴 수 없다. 그렇기에 주어진 시간과 순간들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시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시간이 우리를 해결해준다. 시간을 회피하면 안 된다. 당신의 시간을 사랑하라.

정은영 수습기자

올해는 어디서 벚꽃을 볼까?

2023년 전국 벚꽃 명소 알아보기



▶벚꽃 ▷사진 출처-Pixabay

▶따스한 봄 햇살 ▷사진 출처-Pixabay

벚꽃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 올해는 평년보다 2~9일 빠르다. 제주 서귀포부터 시작된 연분홍 물결은 이달 말 남부지방을 거쳐 다음달 초 서울과 인천, 강원에 상륙한다. 진해군항제가 25일 4년만에 정상 개최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벚꽃축제도 활짝 개화한다.

기상정보업체 '웨더아이'에 따르면 올해 벚꽃은 3월22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26일 대구, 27일 부산 광주 전주, 29일 여수, 31일 대전 강릉에서 피어오른다. 서울은 오는 4월3일, 춘천은 4월7일, 인천은 4월8일 벚꽃이 핀다.

개화 후 일주일 가량이 지나면 벚꽃은 절정을 맞는다. 서귀포에서는 3월 29일 이후, 남부지방은 4월 2~7일, 중부지방은 7~14일께가 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4월 10일에 절정의 벚꽃을 만날 수 있다.

4년만의 군항제 개막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타리 일원에서 4년만에 진해군항제가 정상 개최된다. 축제는 25일 개막해 오는 4월3일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동안 450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진해는 축제기간 36만 그루의 아름드리 벚나무로 온통 연분홍 세상이 된다. 도시 전체가 벚꽃 천국이지만 그중 '로망스다리'로 알려진 여좌천은 1.5㎞ 구간의 개천을 따라 늘어선 벚꽃나무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려 절경을 이룬다.

경화역 철길 따라 늘어선 아름드리 벚나무에서 나풀나풀 흩날리는 새하얀 꽃비도 낭만 그 자체다.

수많은 인파를 피하고 싶다면 벚꽃 드라이브가 답이다. 푸른 바다와 벚꽃이 어우러지는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진해 해안도로 벚꽃길은 차를 타고 속천항에서 출발해 진해루, 소죽도공원, 행암철길마을, 수치마을, 진해해양공원을 지나 흰돌메공원과 황포돛대 노래비가 있는 영길만까지 20㎞ 구간의 벚꽃길을 감상할 수 있다.

탁 트인 바다를 끼고 달리다 바다 조망이 눈에 덜 띈다 싶을 때 그새 벚꽃 터널이 등장해 지루할 틈이 없다. 행암에서 삼포로 이르는 왕복 2차선 도로를 따라 줄줄이 피어오른 벚꽃 군락이 특히 장관이다.

경주벚꽃축제도 활짝

경북 경주 대릉원 돌담길 일원에서도 4년 만의 대면 '경주벚꽃축제'가 열린다. 오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사흘간 황리단길, 동궁과 월지, 월정교, 첨성대 등을 찾는 관광객들이 벚꽃과 함께 한바탕 축제를 즐길 예정이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소개된 대릉원 돌담길은 축제 기간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벚꽃 흩날리는 도로 위 힐링을 선사한다.

황남빵 삼거리에서 첨성대 삼거리 구간에 예술로를 조성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푸드트럭, 프리마켓, 아트체험존도 마련된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팔레트 테이블과 하늘을 수놓는 불빛, 야간 포토존 등으로 발길을 사로잡는다.

단순한 축제가 아닌 친환경, 반려견, 봄 힐링 프로그램들도 준비된다. 역사유적지와 황리단길 등의 카페에서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가져가면 친환경 소재 컵으로 교환해 준다. 벚꽃을 보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 반려견을 동행하는 댕댕이 놀이터도 운영된다.

재단은 지난해 보문단지와 충효동 등 주요 벚꽃 명소를 제외한 경주의 숨은 벚꽃 명당 8곳을 선정했다. 공모를 통해 암곡, 외동 영지공원, 감포정, 황룡사 마루길, 화랑의 언덕, 서출지, 용담정, 신라왕경숲을 엄선했다.

서울도 벚꽃만개… 여의도 봄꽃축제

서울에서도 벚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오는 4월4~9일 '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가 열린다. 여의서로(서강대교 남단~여의2교 입구) 및 여의서로 하부 한강공원 국회 축구장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약 500만 명의 상춘객이 다녀갈 전망이다.

올해 축제는 코로나 엔데믹 전환에 따라 2019년 수준으로 전면 대면 개최된다. '다시 봄'을 주제로 4년 만에 온전히 봄의 생동감을 시민들에게 선사할 계획이다.

여의도 봄꽃축제는 ▲오랜만에 봄꽃축제를 찾은 시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시민맞이 개막행사' ▲매일 저녁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봄꽃나잇' ▲공예품과 친환경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아트마켓'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된 '푸드마켓' ▲벚꽃길의 즐거움을 더해 주는 '버스킹' ▲직접 보고 생생하게 경험해 보는 '전시 및 체험' ▲서울마리나리조트와 함께하는 '요트투어' 등 다채로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봄꽃축제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관내 음식점, 호텔 등 할인 프로모션 행사인 '영등포 봄꽃 세일 페스타'도 4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이 외에 경남 하동군 화개면 십리벚꽃길(3월 31일~4월 2일), 고창 석원지구 일원(3월 31일~4월 2일), 제천 청풍호 벚꽃길(4월 7~9일) 등 전국적으로 벚꽃축제가 펼쳐진다.

자료출처-뉴시스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축 제·공 연 소 식

콘체르토 말라가

• **기간 :** 2023. 4. 6.(목)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유니버셜발레단 : 지젤

• **기간 :** 2023. 4. 7.(금)~4. 8.(토)
• **장소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R석 12만원 / S석 9만원 / A석 6만원 / B석 / C석 1만원

프롬 단독 콘서트 : 봄밤에 다시 만나

• **기간 :** 2023. 4. 8.(토)
• **장소 :** 부산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
• **주최 :** KT&G 상상마당
• **입장료 :** 전석 77,000원

이은미 콘서트 : 녹턴

• **기간 :** 2023. 4. 15.(토)
• **장소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주최 :** ㈜PLANE
• **입장료 :** VIP석 121,000원 / R석 11만원 / S석 99,000원

PITTA 강형호 콘서트 : BE FREE

• **기간 :** 2023. 4. 22.(토)~4. 23.(일)
• **장소 :**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 **주최 :** ㈜월드쇼마켓
• **입장료 :** R석 121,000원 / S석 11만원

론브랜튼의 April in Busan 재즈콘서트

• **기간 :** 2023. 4. 27.(목)
• **장소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 **주최 :** ㈜문화락
• **입장료 :** VIP석 66,000원 /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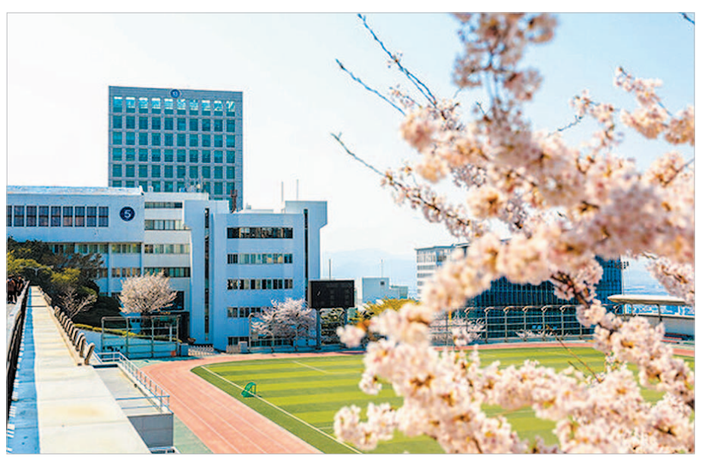
연극 달동네

• **기간 :** 2023. 4. 28.(금)~4. 30.(일)
• **장소 :** 부산 초콜릿 팩토리 소극장
• **주최 :** 극단 바라
• **입장료 :** 전석 3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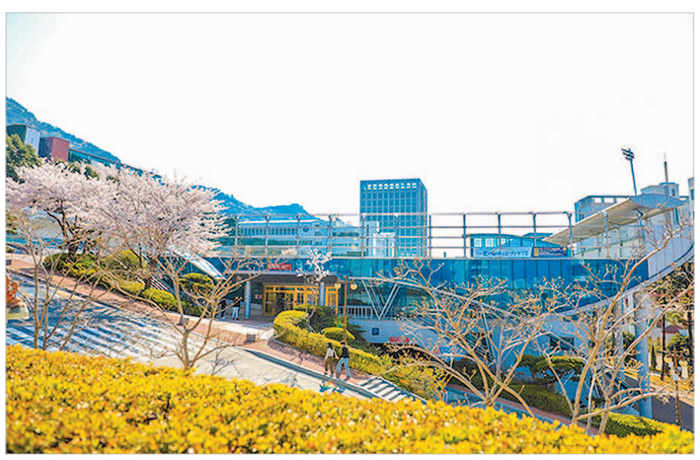
봄아 우리학교에는 무슨 꽃이 피었니?

교내에서 봄을 즐기는 법

▶등나무꽃 ▷사진출처 – 우리문화신문



▶동서대학교 운동장



▶동서대학교 스튜던트 플라자

2023년, 우리 대학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2023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함께 새로운 바람이 불면서 우리 대학과 엄광산에도 봄을 맞이하는 다양한 꽃들이 만개해 많이 피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대학에는 봄을 대표하는 벚꽃을 포함하여 어떠한 다양한 꽃들이 피어났는지, 그리고 봄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봄의 대명사, 벚꽃

일단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벚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네팔, 대만, 이란, 미국 등 북반구의 온대지역 전역에서 핀다. 벚꽃은 봄이 오면 나무 전체에 붉은색, 분홍색, 흰색 등 다양한 색상의 꽃을 피우며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한다. 이러한 벚꽃을 구경하는 것은 봄을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 활동 중 하나로, 벚꽃 구경을 하면서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소풍을 나가거나 술을 마시며 즐길 수 있다.

벚꽃은 연분홍빛이 살짝 감도는 흰색의, 하트 모양의 꽃잎 5장이 방사형으로 나고 붉은 수술대 여러 개가 꽃 중심에 모여있다. 꽃 한 송이의 크기는 손톱 한 마디 수준으로 작은 편이지만, 꽃가지가 무리 지어서 나는 특성 탓에 적어도 5~6송이 이상이 한곳에 모여서 피는지라 화려한 모양새가 된다.

그리고 작은 꽃이 한 나무에 매우 많이 피는지라 꽃을 많이 피운 벚나무의 경우 멀리서 보면 연분홍색의 눈송이들이 가지에 매달린 듯한 광경을 연출한다.

동서대학교 정문에 있는 카페 또한 근처에 벚나무들이 있어 멋진 광경을 선사하오니 시간이 나면 봄이 끝나기 전에 한 번쯤은 가 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다고 봄이 왔다고 너무 놀아서도 안 된다. 보통 3월 학기제인 대한민국 학교에서 벚꽃은 대학교에서는 중간고사가 다가왔다는 의미도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고등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자유 시간이 더 많아서 벚꽃 구경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벚꽃의 친구, 개나리

두 번째로 우리 대학에서 볼 수 있는 꽃은 개나리다. 개나리 또한 봄에 피기 때문에 벚꽃과 함께 봄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다. 다만 벚꽃보다 개화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보통 3월 말) 보통은 진달래와 엮여서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걸 상징한다. 한국에서는 입학 초기, 학기 초기에 항상 만개하는 꽃이다. 개나리의 꽃말로는 희망, 깊은 정, 초봄의 감격, 달성이라고 한다. 또한 개나리꽃 하나를 따서 떨어뜨려 보자. 팽이처럼 돌아가는 재미난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름다운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 철쭉과 등나무꽃

철쭉과 등나무꽃 또한 우리 대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둘은 예쁜 모습과는 다르게 위험할 수 있다. 철쭉과 등나무는 학교의 정원 길가에 가로수 사이사이에 심어 뒤매년 꽃이 필 때쯤이면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으며 등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늘을 만들어 줘 더위를 피할 수 있다. 어릴 때 철쭉꽃에 있는 꿀을 먹어본 사람들이 종종 있을 것이다. 철쭉은 맹독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등나무꽃 또한 잎과 줄기에 독성이 있어서 먹은 후에 심한 배탈과 구토를 하게 된다.

#봄을 맞이하는 방법

봄을 맞이해서 대청소를 준비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갑자기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려 하면 힘들기도 하고 중간에 포기하기도 쉽다. 작은 팁을 알려드리자면 위에서 아래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하며 비슷한 작업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좋다. 또한 주말별로 나누어 계획을 세워서 하거나, 2~3일 정도 나누어서 조금씩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안 쓰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거나 정리해 버리자. 날씨가 따뜻해 겨울 동안 나른해진 몸을 풀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당한 운동은 좋지만, 자칫 무리하게 된다면 탈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다. 겨울에는 활동량이 적어 다른 계절에 비해 근육이 약해지고 골밀도가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과감한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이나 걷기 등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피부가 상할 수도 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하루 8잔 정도 마시고 환기를 자주 해 줘야 한다. 추가로 씻고 난 뒤에는 보습제를 챙겨 바르면 훨씬 좋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에서도 기침을 자주 하는 재학생들이 꽤 보이던데, 봄철 감기를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감기에 걸렸다면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공기가 나쁜 곳은 피해주어야 한다. 땀에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밖을 나가는 것도 좋지 않다. 잠은 충분히 자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다.

2023 새해의 시작, 봄

이렇게 봄에 우리 대학에서 피는 다양한 꽃들과 봄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외에도 우리 대학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며, 이를 볼 수 있는 산책로나 휴식 공간도 마련돼 있다. 산책로가 길지 않아서 시간이 없는 학생들도 빠르게 산책을 즐길 수 있고, 대학교 근처에 위치한 소규모 공원으로 이어지기도 해서 더욱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따뜻한 봄날에는 우리 대학에서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하며 힐링을 즐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더불어서 교내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리기 때문에 산책 중에 잠시 들러서 문화적 즐거움도 함께 누려보길 바란다.

자료출처 : 위키백과
네이버 블로그 – 희야의 소소한 일상
브런치 – 봄을 맞이하는 자세
김우진 수습기자

대학생들이 4월을 즐기는 방법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는 청춘들

▶대학생들 ▷사진출처 – pixabay

▶벚꽃길 ▷사진출처 – pixabay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사진출처 – pexels

춥던 겨울도 지나가고 이젠 봄 햇살이 비추고 있다. 우리에게 시작을 알리는 봄은 어쩐지 마음을 설레게 한다. 피어나는 꽃이 예쁘게 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다가올 미래에 따뜻한 희망을 품게 된다. 사람들은 이런 봄을 즐기기 위해 개화 시기를 확인하고, 옷차림을 가볍게 꾸미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간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은 봄이 피어나는 4월을 어떻게 즐기고 있을까?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오랫동안 우리 몸의 일부처럼 여기던 마스크가 '봄'이라는 시기와 함께 대중교통에서도 의무 착용이 해제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에는 돈이 있어도 마스크를 살 수 없어 약국에 줄을 서서 사야 했던 때도 있었다. 마스크가 없으면 실내도,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스크를 깜빡 잊고 나왔다면 집을 다시 들어가야 했던 경험도 우리 모두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은 MT나 입학식 등을 온라인으로 해야 했고, 축제나 동아리 또한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했기에 '코로나 블루'라는 증상도 생겼다. 그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그런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았다. 우리는 언제 코로나19 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작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현재는 실내 및 대중교통에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꿈 같은 얘기가 아니다. 대학생들은 못 갔던 MT를 가고, 축제 및 체육대회까지 야외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강의실이나 도서관에서도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공부를 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캠퍼스를 누비며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뷰티 및 헤어 유통업계들의 경제 또한 되살아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봄이 찾아오는 시작의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다.

#꽃놀이

'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꽃'이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즘이 되면 산수유가 노랗게 가장 먼저 봄을 알린다. 다음 순서로는 매화, 목련, 개나리, 진달래, 그리고 봄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꽃, 벚꽃이 그다음이다.

올해의 봄이 유독 설레는 이유 중 하나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꽃놀이를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도 동기들과 혹은 커플, 가족들과 삼삼오오 꽃놀이를 가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다.

올해는 마스크 해제로 인해 여행객이 몰리는 '벚꽃 쏠림 현상'까지 예상된다. 여기어때에서 '봄꽃 여행 계획'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의 96.2%가 국내 봄꽃 여행을 가겠다고 응답했다. 올봄 꽃구경 인파가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4월 첫 주로 27.7%가 이 시기에 꽃놀이를 떠난다고 답했다. 그만큼 올해는 꽃놀이를 가기 적합한 때임을 말해준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아름다운 꽃들로 물든 길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진을 찍거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날려보는 건 어떨까.

멀리서 벚꽃 명소를 찾지 않아도 우리 학교 주변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 그중 하나는 '개금벚꽃문화길'이다. 데크길 위에 오르면 주택의 지붕과 벚꽃이 어우러지는 풍경으로 유명하다. 부산의 숨겨진 벚꽃 명소이자 최근 부산에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또 한 곳은 카페 '이띠'다. 부산의 벚꽃 사진 스팟으로 유명한 카페 중 하나다. 루프탑에서 흐드러진 벚꽃이 마치 카페를 덮은 것처럼 보인다. 벚꽃 자리는 포토존으로 지정돼 있어 사진으로 남기기 좋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등하교할 때 위 두 곳을 잠시 들려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시간이 지나 졸업할 즘에 이맘때 찍은 사진을 본다면 어디선가 꽃내음이 밀려오듯 추억이 생생할 것이다.

#새로운 목표

새해의 출발은 1월이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3월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한 해에 있어서 두 번째 새 출발을 하는 달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3월은 왠지 마음이 설렌다.

또 새로운 목표를 다시 세우기도 한다.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어학성적, 자격증, 공모전 등과 같은 스펙 쌓기에 돌입하기도 하고, 취업 전 여행이나 목돈 마련을 위해 돈을 아끼기로 다짐해 보기도 한다.

이런 크고 작은 목표를 위해 멋지게 짜놓은 계획을 실행에 옮겨보지만 무언갈 꾸준히 하기란 쉽지 않다. 다짐하고 며칠 간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그 목표를 잊어버린 나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럴 때면 자책만 하고 주저앉아버리게 된다. 왜 나는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지 의문을 품은 경험이 다들 한 번씩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문제는 정말 나의 의지박약인 걸까?

우리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자.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방법들이 담긴 책을 한 권 소개해 보고자 한다.

바로 로버트 마우어가 쓴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이다. 이 책에서는 큰 목표를 잘게 쪼개 스몰 스텝을 반복함으로써 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이게 될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작은 변화를 믿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많이 성장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봄이 오면 괜히 거창한 무언가를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우리 학우들은 중간고사 또한 대비해야 한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시험공부에 힘들 수 있지만 등하굣길에 피어난 꽃들을 보며, 살랑이는 바람을 느끼며 마음을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정나연 수습기자

엄광산 맑은 소리

개화

김은화(회계세무학전공·4)

개화는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각자 생일에 따른 탄생화 알아보기가 유행했었다. 친구들은 튤립, 복숭아꽃, 벚꽃 같은 듣기만 해도 예쁜 꽃이었다. 나의 탄생화는 뭔지 기대감을 안고 찾아봤다. 웬걸, 옥수수란다. 처음엔 잘못 나온 줄 알고 다시 찾아봤었다. SNS에서 언뜻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다. 누군 탄생화가 옥수수래!! 근데 그게 내 얘기일 줄은 몰랐으며 조금은 웃겼다.

아울러 개화는 핑크빛 봄을 연상시킨다. 봄에는 양상한 가지에서 삐죽 튀어나오는 새순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일정한 주기에 맞춰 새 학기가 시작되고 어딘가 모르게 설레는 마음도 툭 나와 버리는 계절이다.

그리고 개화, 우리 학교랑 잘 어울리는 단어다. 캠퍼스에 핀 꽃을 보고 떠올린 생각이다. 올해 2023년과도 잘 어울린다. 나는 소위 코로나 학번이라 불리는 20학번이다. 내가 다녔던 대학교의 3년은 과장하자면 유령 학교 그 자체였다. 대학생이라면, 20대의 초입이라면 겪어야 할 설레고 두근거리는 캠퍼스를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다. 학과 친구들과도 작년부터 친해지기 시작했다. 나의 설레고 싶은 이 새것 같은 마음은 아직 2학년인 것만 같다.

저번 학기까지만 해도 마스크로 무장한 무표정의 사람들이 이젠 천 조가리에서 해방되어, 마치 얼굴에 꽃이 핀 것처럼 개화했다. 학교 밑 술집 거리도 활기를 되찾은 듯하다. 사장님들의 얼굴에도 꽃이 폈겠지!

모든 면에서 너무나 다행이지만 진짜 아깝게 느껴졌다. 내 대학 생활이. 사이버대학교에 다닌다는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아서 학교에서 하는 비교과 활동에 많이 참여했다. 20년도 2학기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는 독서클럽, 우수 연구회, 여대생 진로취업동아리, 해외취업동아리 등에 참여하여 많은 경험을 했다. 거기서 내가 모르는 나의 성격을 발견했다. 새로운 사람 만나서 나의 세계를 넓혀가는 것도 좋아하고, 천천히 써 내려가는 오로지 나만의 글도 좋아한다는 것을. 이것도 '개화'의 한 종류이다.

난 '꽃이 피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개화만을 생각하고 글을 쓰고 있었다. 그러다 '사람의 지혜가 열려 새로운 사상, 문물, 제도 따위를 가지게 됨'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나는 아주 오래 전부터 개화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한 편이었다. 무려 초등생까지는 독서왕이라는 타이틀까지 있었다. 사춘기인 중학교를 거치며 멀어졌지만, 다시 고등학생 때 훅, 가까워진 순간이 있다. 학급 내에 비치된 몇 권 되지 않은 도서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었다. 그러던 중 여행 에세이가 담긴 책을 접하고 다시 흥미를 붙였다. 이미 동아리도 다 선정된 순간이었지만, 졸라서 교내 도서부에도 들어가 시간만 되면 도서관에 붙어있었다. 사실 시작은 만화책이 많아서 들어갔지만 졸업할 때쯤엔 교내 안에 있는 책의 3분의 2는 읽었을 것이다.

돌이켜보니 나의 추진력에 깜짝 놀랐다. 나는 원래 우유부단한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극적일 수 있구나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 시점도 내 인생의 나무에서 한 개비의 꽃이 개화한 시점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은가. '꽃마다 개화하는 시기가 다를 뿐이다.' 일찍 피는 꽃 도 늦게 피는 꽃도 모두 아름답다. 얼마나 빨리 꽃을 피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의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피어나려는 성장만 하면 된다. 느려도 된다. 옳은 방향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만약 느린 흐름에 자신에게 실망하고 지쳤다면 마인드컨트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때 그 순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순 없으니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을 또 다른 후회하는 순간으로 만들지 않으면 된다.

삶은 '인간사 새옹지마'이다. 좋은 일이 있으면 힘든 일도 있다. 스스로의 과한 기대치에 대한 욕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직진해 보았으면 하다. 정상만 보고 달리라는 뜻이 아니라, 주변도 둘러보고 행복을 찾아 쥐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홀로 피어나는 방법도 알아갔으면 한다. 칼 같은 바람과 폭우들을 겪어봐야 깊어질 수 있듯이, 그 후엔 단단한 뿌리를 얻게 되어 멋진 꽃을 피워낼 수 있는 법이다.

죽비소리

벚꽃이 주는 작은 편지

김광령(국제물류학과·4)

요즘 학교를 올라가다 보면 하루가 멀고 벚꽃이 점점 선명하게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벚꽃을 보면 괜스레 추웠던 겨울이 지나 점점 따뜻한 햇살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괜히 포근함이 피부를 스치는 것 같다.

걷다 보면 많은 이들이 벚꽃길에 서서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는 모습이 마치 순수한 모습을 보는 거 같아 괜히 피식하게 된다. 이미 학교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도 있지만 이제 대학교란 곳을 와 많은 기대를 한사람들도 있을 텐데 많은 이들이 잠시 벚꽃을 보고 햇빛을 느끼며 쉬어가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긴 시간을 버텨온 벚꽃을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을까 싶다.

서론이 너무 길었지만, 나는 오늘 비를 맞은 벚꽃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잘 버티는 것 같다고 느껴졌다. 이 글을 위해 계속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저 벚꽃들도 짧은 시간을 멋진 모습으로 뽐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뎌왔는가? 이것을 개화라 표현하고 싶다.

나는 개화라는 이 두 글자 단어가 참 낯설게 느껴진다. 개화란 무엇일까? 뜻이 참 신비롭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두글자 같다. 풀이나 나무에서 꽃이 핀다는 듯 그저 단순하게 꽃이 피는 것인데 왜 이리 유별인가 싶지만 나는 이 뜻을 현재 살아가는 많은 분께 조심스레 비유하고프다.

자신의 이상, 목표, 꿈 추상적이지만 무엇보다 명확한 것 이것을 위해 달려가는 많은 이들이 같은 시간 아래 있을 것이다. 문득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 비해 힘 없고 외로운 나날을 보내는 이 나무나 풀들은 험난한 10개월이라는 어둡고 적막하며 추운 긴 터널을 외롭게 홀로 걸어 나와 끝으로 꽃을 피워 누구보다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드러내지 않는가 사람이란 존재도 이 꽃과 나무와 닮은 구석이 참 많은 것이라 생각한다.

정해져 있지 않은 무수히 많은 목표나 꿈을 위해 달려온 시간들과 함께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밤낮이며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외로운 자신과의 싸움을 함께 공부하는 A, 스포츠라는 종목에서 자신을 보여주고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는 B,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많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또 다른 C, 그 외에도 D, E, F, G…….

수많은 어떤 이가 있을 것이며 모든 이들은 자신의 아름답고 멋진 꽃을 피우기 위해 앞으로 달려 나간다. 나는 이 부분을 개화에 비유하고자 한다. 저런 걸 말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짧게나마 작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소방공무원이라는 꿈을 가지며 지금도 합격을 위해 긴 터널을 걸어가고 있다. 처음 1년을 준비할 땐 외롭게 나 홀로 명확한 정답이 보이지 않는 1년을 준비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영어 공부를 시작으로 오전과 오후엔 두 과목, 저녁엔 가산점 공부와 운동을 하고 학교에 다니며 틈틈이 준비했다.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과연 내가 하는 방법이 정답일까? 엇갈린 길을 하염없이 가고 있진 않은가?"하며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갔다. 그렇게 대략 11개월의 시간이 지나 필기시험을 치니 이상하리만큼 후련하면서도 허탈함이 찾아왔지만 불합격을 보는 순간 칼에 베인 것처럼 쓰라린 상처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다시 처음부터 도전하며 이번해 당당하게 필기 합격 가능성을 받게 됐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고 저의 꽃이 최종 합격이라는 완등을 함께 피워내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디디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본다.

나는 여기서 많은 학우분도 제각각의 꿈을 가지고 누군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누군가는 당당하게 자신의 꽃을 피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모든 학우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고픈 것이 생기면 누구나 망설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한번 사는 인생 아직은 젊으니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 조심스레 말해 본다.

나 또한 현재 재학 중인 학과와는 너무 거리만 먼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자신의 꽃을 개화하기 위해 달려가는 모든 이들을 마음속으로 작게나마 응원하고자 한다.

위험하고 힘든 이 일이 왜 하고 싶냐는 물음에 난 "이왕 한번 사는 거 많은 사람을 구하는 그런 일 정말 괜찮지 않을까? 이번 삶은 썩 후회 없는 괜찮은 인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싶다. 이 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달의 명언

꽃향기는
바람의 방향으로만 퍼진다.
하지만 사람의 선함은
모든 방향으로 퍼진다.
—차 나캬

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다.
—크리스찬 디올

네컷 만화

생각의 혁신

봄에 피어나는 벚꽃처럼 여러분의 재능이라는 꽃이 피어나는 4월달이 되길 바랍니다.

목회 칼럼

개화, 꽃과 이상

최 민 구 교목실장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시65 : 10)"

봄이다. 따뜻한 바람이 살갗을 스친다. 그러나 보다 더 봄을 실감케 하는 것은 형형 색깔의 꽃들이다. 노랑과 하얀색, 분홍빛이 우리의 눈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보는 순간에 뇌와 온몸이 봄의 색깔을 깊이 마신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어나는 듯하다. 동서대 캠퍼스 내에도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추위에 핀 매화와 봉오리로만 보이던 목련이 곱디고운 백색의 자태를 뽐낸다. 이에 질세라 샛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고, 그런 개나리를 시샘하듯 이른 잠에서 깬 하얀빛과 연분홍빛이 어우러진 벚꽃이 온 캠퍼스를 물들여 놓는다.

이처럼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고 그 꽃들을 보는 캠퍼스 학생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만개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꽃은 캠퍼스 내의 학생들이다. 코로나의 긴 겨울을 견디고 젊은이 꽃들이 캠퍼스 곳곳에 피어 전혀 새로운 색깔로 동서대학을 물들인다. 이런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린다. 이 얼마나 고대하던 캠퍼스의 풍경인가.

꽃이란 'Before'와 'After'가 있다. 캐서린 메이는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라는 책에서 '윈터링(Wintering)'이란 단어로 묘사되는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는 자신의 인생을 깊이 숙고했다. 봄꽃 나무들은 모두 이런 '윈터링(Wintering)'을 거친다. 이것이 꽃의 Before이다. 차디찬 시련의 겨울을 견디어 살아남으므로 여린 꽃순이 딱딱한 가지로부터 올라와 강인한 생명력을 뽐내며 아름다운 꽃을 틔우는 법이다. 누군가 인생도 꽃피는 시기가 있다고 했던가. 그렇다면 인생도 저마다 겨울이 있다. 그 겨울나기를 통해 인간은 자기 내면이 변화하고 성숙해진다. 그리고 겨울의 끝자락에서 꽃이 피듯 인생의 윈터링을 거치고 난 후에야 삶의 꽃이 핀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도 마찬가지이리라. 동서대학교 공동체 역시 지방대학의 한계와 학령인구 절벽의 '윈터링(Wintering)'을 통과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믿는다. 이 시기를 통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어 활짝 꽃피우는 우리 대학이 될 것을 믿는다. 그러기 위해 '윈터링(Wintering)'의 때에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윈터링(Wintering)'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동서대학으로 꽃 피울 수 있으리라.

'꽃의 After'는 무엇일까? 꽃은 미래가 있다. 혹독한 윈터링(Wintering)을 견뎌내고 난 후 개화된 나무의 꽃은 반드시 미래가 있다. 이는 곧 열매이다. 열매는 꽃을 틔운 나무가 갖는 특권이다. 농부는 꽃이 핀 것을 보고 설레는 가슴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왜냐하면 꽃은 열매를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열매는 꽃이 없으면 기대하기 어렵다. 인생에 있어서 '윈터링(Wintering)' 이후에 피는 꽃은 꿈과 비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 벅찬 인생을 산다. 꽃이 열매를 기대케 하듯 이상을 가진 자는 결실을 간절히 사모하며 산다. 그러나 꿈과 장래성이 없는 인생이라면 꽃이 없어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나무와 같다고 하겠다. 봉오리에서 꽃을 피우듯 꿈과 비전을 만들라. 그러면 그대는 꿈과 비전이 이끄는 인생이 되어 후회 없는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동서대학 역시 마찬가지다. 결실에 대한 기대를 하도록 하는 봄꽃처럼 비전이 있어야 한다. 세상에 없는 대학을 꿈꾸는 동서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학생들을 길러내고자 한다. 기독 정신에 따른 바른 인성을 갖추고, ESG를 중시하며, Digital tool과 Communication skill을 지닌 학생을 배출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곳이 교육장이 되는 Everywhere', '세계 수준의 특성화 교육으로서의 'Excellence',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수업의 'Engagement'의 꽃을 피우고 결실을 기대한다. 학생 개개인이 'Before Dongseo After Dongseo', 곧 BDAD를 실현하는 학교가 되는 비전을 꿈꾼다. 본인은 오늘도 이 비전의 꽃을 바라보며 '꽃의 After'를 기대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다.

사 설

MZ, 우리가 정말 문제아인가요?

곳곳에서 'MZ세대'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한다. 어떤 밈이 유행할 때도 MZ, 패션 아이템에서도 MZ, 뿐만 아니라 어떤 트렌드를 유행시키고 싶을 때도 MZ세대 필수 등의 키워드를 넣는다.

개그 프로그램에도 MZ와 관련된 소재가 유행하고 있다. 유명 개그 프로그램인 SNL에서는 '신입 기자 주현영'에 이어 '밝은 눈의 광인'이라는 캐릭터를 선보였다.

그러나 나는 이게 MZ세대를 우습게 만들고, 아직 맛설 힘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을 놀리는 행위처럼만 느껴져서 웃기기는 커녕 불편한 기분만 들었다.

몇 년 전에 개그콘서트 프로그램이 폐지됐다. 이에 대해 소수의 개그맨들은 개그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요즘 언어로 말하자면 모든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진지충'들 때문에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한다. 못생긴 사람, 뚱뚱한 사람, 장애인을 비하하고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셈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재미'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다. 재미란 ①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 ② 안부 인사에서 일이나 생활의 형편을 이르는 말 ③ 좋은 성과나 보람을 의미한다. 우리를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놀리는 일에서 아기자기하고 즐거운 기분을 느낄 수 있나? 누군가를 비방하는 내용의 개그를 하는 개그맨들도 좋은 성과나 보람을 느끼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유튜버 '사내뷰공업'이 단기간에 큰 성장폭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소재를 다루지 않았다는 거다. 서울의 집값, 수험생 스트레스, 아르바이트 갑질 등 사람들과 관련된 사회와 직결된 문제를 비꼬거나,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라인으로 댓글에서 공감과 토론의 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오는 웃음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었다.

SNL에서 다루는 신입 기자 주현영이나 맑은 눈의 광인은 우리를 사회 생활도 할 줄 모르고, 기본적인 업무 지식도 없고, 사회 부적응자 같은 모습을 보이는 애들로 일반화한다. 그저 단순하고 평면적인 웃음과 쾌락만을 좇고 있는 게 요즘 개그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그렇다고 주현영, 김아영 같은 개그우먼들이 망하길 바라는 건 아니다. 주현영이나 김아영 이전에도 혐오로 범벅된 개그를 했음에도 유명해진 개그맨들은 많기 때문이다.

또 주현영이나 김아영 같은 경우에는 사회 초년생인 여성을 놀리는 개그도 하지만 이전까지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정치 비판 개그 스토리도 제작했다.

신입 기자 콘셉트로 진행하는 인터뷰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대통령 후보를 뽑자면 군의관 장교로 3년 이상 복무한 사람 VS 군 미필'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선배 개그맨들은 하지 못했던 정치 문제나 인물에 대한 풍자 개그를 한 적도 있다.

그럼에도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적어도 미숙하고 아직은 서툰 누군가를 비난하는 개그를 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행동임을 인지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아마 SNL 제작진이나 관계자가 이 글을 본다면 '진지충 때문에 농담도 못 던지겠다'며 나를 비방하는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의문을 던져야 한다.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모든 사람들이 웃는다고 따라 웃는다면 나는 결국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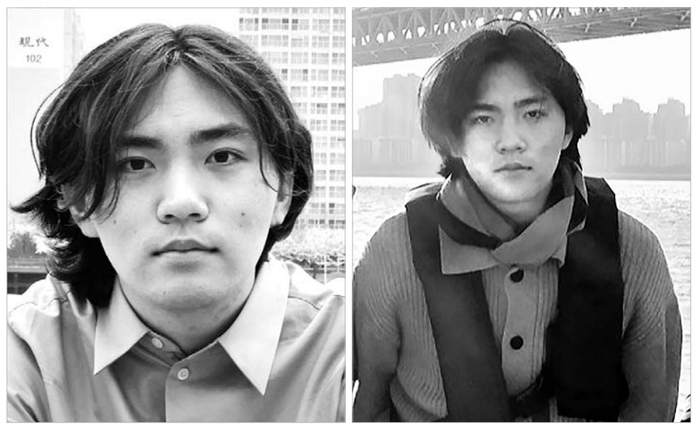
동서만평

글·그림 김은아

■ 학생 인터뷰－신입생 대표 영화과 엄재혁 학생

신입생 대표 학생과의 만남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기쁨



▶엄재혁 학생 사진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신입생들. 그중 수능성적을 수석으로 입학해 입학식 선서 주인공이 된 신입생 대표 엄재혁 학생을 만나봤다. 동서대학교를 왜 선택했고, 입학한 과는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앞으로의 학교생활은 무엇이 가장 기대되는지 등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동서대 23학번 영화과에 재학 중인 엄재혁입니다.

Q. 동서대학교 입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A. 일단 대학을 선택하면 보통 수시나 실기나 수능으로 들어오는데 여러 길을 생각해 봤어요. 그 과정에서 영화과 실기 준비도 조금 했었는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웃음) 뭔가 영화에 대한 애정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은 건 내신이나 정시였습니다. 제가 내신보다는 수능 성적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수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선택할 때는 학벌보다 학교에 어떤 교수님이 가르치시는지 이런 부분에 더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동서대에 장학금 제도도 잘돼 있다고 해서 되게 좋은 학교라고 생각했어요.

Q. 신입생 대표가 어떻게 되셨는지, 그리고 입학식 선서 주인공이 되신 소감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A. 수능 성적 수석으로 입학해서 됐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입학식 오는 길에 길을 잃었었어요. 그래서 겨우 찾아와서 선서할 때도 되게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제가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동기들이 신입생 대표라는 것 때문에 멋지다고 계속 말해서 그럴 때마다 정말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Q. 전공이 영화과인데 동서대 영화과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 내가 뭘 열심히 할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글 쪽으로도 고려했었지만 제 문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어중간하게 사는 것은 지양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열심히, 즉기 살기의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내린 결론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영화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Q. 입학하신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떠신가요?

A.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보다는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성인이 되니까 안온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체력이 많이 부족한 게 느껴져서 술을 의미 없이 마시는 건 피하고 있습니다.

Q. 학교에서 하시는 다른 활동이 있으신가요?

A. 영화과에 오면서 기대했던 것 중 하나가 저처럼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센텀 캠퍼스 뒤에 영화의전당 영화 자료실(시네마테크)이 있는데 그곳에서 친구들과 거의 매일 영화를 봐요. 본 영화에 대한 생각을 쓰고 친구들이랑 토론하는 것처럼 깊이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는데 이런 시간이 너무 즐겁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뒤에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가 있어서 그 부분이 특히 너무 좋습니다. 언제든지 영화를 보러 갈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Q. 앞으로의 학교 활동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A. 개인적으로 기대하면서 사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본다면 아무래도 영화과니까 영화를 보고 탐구하는 활동이 제일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기다려지는 영화 중에는 이탈리아 영화인데 자전거도둑이라는 영화가 가장 기대돼요.

Q. 우리 대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A. 일단 퀄리티는 부족하더라도 저만의 창작물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목표는 각자마다 생각이나 가치관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견해들을 서로 나누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많이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Q. 우리 학교 교수님께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려요.

A. 제 담당 교수님이 손현석 교수님이신데 학생들을 되게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매주 학생들을 면담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현석 교수님께 사랑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동서대학교에 입학할 예비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A. 아직 학교를 한 달 다녀봐서 조금 쑥스럽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학교 활동에 임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마다 취향이나 적성도, 사랑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 잘 탐구하면서 학교에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나연 수습기자

■ 학생 인터뷰－일본어학과 유학생 아스카, 리사

유학을 꿈꾸시나요?

일본 학생들의 유학 이야기와 한국에 대한 관심

▶왼쪽부터 리사, 아스카 학생 사진

이번 2023학년도 1학기에 일본에서 유학을 온 친구들이 있다. 언어의 호기심이 더 큰 세계로 향하는 도약을 만든다. 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그리고 왜 동서대학교로 유학을 왔을까? 아스카와 리사 유학생과의 인터뷰를 진행해봤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A1 :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3학년이자 일본에서는 4학년인 스루가다이 대학교 출신 도쿠야마 아스카라고 합니다.

A2 :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인 오타니 대학 출신 코하라 리사라고 합니다.

Q. 한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 쓰시던데 평소에 한국에 관한 관심이 있으셨나요?

A1 : 고등학생 때 밀양시에서 1주일간 진행하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했었어요. 그때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같이 지내는 사람들도 아주 좋고 맛있는 음식 덕분에 점점 관심이 생겼죠. 같이 참여한 친구들이랑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A2 : 제 어머니가 한국이랑 일본 혼혈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국 음악이나 음식을 엄마를 통해 알게 됐어요. 다행히 저도 케이팝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죠. 케이팝 노래의 가사 의미가 궁금했고, 무대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라이브 방송과 드라마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Q. 한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A2 : 저는 독학했어요. 노래 가사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새로운 단어들을 습득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지금은 시간 날 때 자막 없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멈춰서 검색해봅니다.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그 단어를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는 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Q. 동서대학교로 유학을 오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A1 :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어를 할수록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동서대학교 유학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고요. 또 일본에 관심 많은 친구들에게 제 관점의 일본을 이해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왔어요.

A2 : 고등학생 때부터 유학을 가는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유학을 고려해서 결정했죠. 한국 대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동서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간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동서대학교가 궁금했습니다.

Q.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보니 어떤가요?

A1 :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요. 다른 학과에 친해진 언니들이랑 같이 간식을 먹거나 서면에 가거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학교가 오르막길인 게 제일 힘들어요.

A2 : 한국어를 좀 안다 해도 외국은 외국인 법이라 낯선 점도 많고 잘 안 되는 일들도 많았어요. 수업 끝나고 카페를 같이 가는 것들이 소소하지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학생분들 다 친절하고 착하시고 말도 잘 걸어 주셔서 너무 좋아요. 한국 친구들과 같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신기하고 재밌고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Q. 우리 학교에서 배운 수업 중 어떤 수업이 가장 흥미로웠나요?

A1 : '한국 언어와 사고'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제가 일본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한국 언어와 사고'는 심리 쪽으로 연관이 되어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생각이나 행동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다시 알 수 있는 반성과 성찰의 기회가 돼요.

A2 : 한국의 최근 뉴스를 보고 말하는 수업이 있어요. 일상 속에서 나오지 않는 어려운 어휘들이 많아서 다소 어려우나 그게 배울 점이 돼 동기가 생겨요. 한국 어휘를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Q. 일본 유학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A1 : 한국 유학을 다녀와서 너무 좋은 즐거움을 얻었기에, 만약 일본 유학을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꼭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들이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유학이 좋다는 걸 한국에 와서 느꼈어요. 아는 친구가 말해줬어요.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경험을 산다고요. 해 보고 싶었던 것들, 가 보고 싶던 곳들도 다 가 봐요. 다 경험이 되니까.

A2 : 유학을 결심하면 큰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문제 없어요. 가기만 하면 돼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라면 무조건 그걸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국 오기 전까진 무섭고 두려웠지만 실제로 오니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힘든 것도 많지만 또 그걸 뛰어 넘는 재미, 한계를 도전하는 재미. 그게 중요해요. 친구가 되어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용기를 한 번 내보면 그 뒤는 쉬워요. 처음이 어려울 뿐이죠. 일단 결심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은영 수습기자

성경 속 음식 이야기－쓴 나물

▶디르크 바우츠의 <유월절>

▷사진출처－네이버 약샘 블로그

 # 우리나라에서의 식사

"식사는 하셨어요?"

예전부터 보면 어른들은 만나서 인사할 때 늘 식사 여부를 묻는다. 그 외에 다른 인사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음에 밥 한 번 먹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콩밥 먹는다", "계 탔으니 밥 한 끼 사라" 등등.

우리 삶과 식사는 뗄 수 없다는 걸 일상 속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먹고사는 건 우리가 평생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먹고사는 문제를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번에는 새로운 시각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자.

 #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구약 성경 이야기에서 음식과 관련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주시고 같이 잔치를 누리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사람은 끝없이 그 밥상을 걷어찼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엄마가 어린아이를 찾아가서 음식을 주듯이 계속해서 사랑을 찾아가셨다.

신약 성경에선 직접 참다못한 예수님이 본인의 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빵과 음료로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새롭게 되어 진정한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한다. 예수님이 직접 돈과 식을 써 가시면서 제자들을 수많은 잔치에 초대를 한다.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도 초대하여 식사 자리에 참여하게 했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술주정꾼이라 하기도 했다.

 # 성경으로 보는 하나님이 정해준 음식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창세기 1 : 29)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처음으로 음식에 대해 언급하신다. 처음에는 채소와 열매만을 허락하셨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9 : 3)를 통해 하나님이 육식도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이때는 노아 시대 대홍수 이후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레위기 11 : 1~47)

하나님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셨다. 그리고 정한 짐승만을 식습하기를 허용하셨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다.

그 이후엔 우상숭배를 금지했다. 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구별 없이 식습하되 다른 신을 숭배하는 제단에 올려진 음식 제물과 피, 목매어 죽인 것만 금했다.

 # 유월절

유월절이란 성경에 기록된 3차의 7개 연간 절기 중 첫째 절기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운 새 언약의 핵심 진리다. 성력 1월 14일 저녁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며 새 언약을 세우셨다.

유월절 이름의 뜻은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다.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하는데 '지나가다', '뛰어넘다'라는 의미의 동사 '파사흐'에서 파생됐다. 이 명칭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에서 유래됐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을 지켜 이집트에서 해방돼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신약시대 성도들은 새 언약 유월절을 지켜 영생을 얻고 죄악 세상에서 해방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

 # 그림으로 보는 유월절

첨부된 사진은 디르크 바우츠의 <유월절>이라는 작품이다. 그림 속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자. 모자를 쓰고, 사진에 다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발 끈도 매고, 지팡이를 짚으며 비장한 표정이다. 식사를 하다가도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차림새다. 그리고 그들은 서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벽에 기대거나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식탁에 반듯이 앉아있지만 사실 누워서 비스듬히 식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 속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를 통해 그림 속 상황은 긴박함을 알 수 있다.

성력 1월 14일 해가 질 때 1년생 숫양을 잡아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먹는다. 그림 속 사람들은 유월절 음식인 불에 구운 어린 양고기, 쓴 나물,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무교병을 먹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해 10일이 되는 날에 1년 된 양이나 수컷 염소를 좋은 것으로 놔둔다. 그리고 4일 후 저녁때 그걸 잡아서 허겁지겁 먹는다.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탈출을 감사하고 그것을 대대손손으로 가르치자는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구속사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다.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이라고 한다. 구약시대 때는 저렇게 어린 양이나 염소를 대신 치르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돌아가심으로써 살과 피를 먹은 우리들이 영생을 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 유월절 음식 쓴 나물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출애굽기 12장 8절),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민수기 9장 11절).

이런 성경 속 구절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교 절에 쓴 나물을 먹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월절 식탁에서는 감사의 기도 후에 채소를 처음 먹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유월절이 봄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월절은 보통 봄을 여는 시기에 기념한다. 유월절 식탁에서 쓰는 나물이나 야채는 희망과 재생을 의미한다. 유월절에 사용되는 쓴 나물은 다섯 가지가 있다. 치커리, 꽃상추, 소류쟁이, 상추, 박하 등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쓴 나물을 유월절에 먹었을까? 그 이유는 애굽에서 혹독했던 고통, 슬픔, 탄식을 기억하려는 의도에서 쓴 나물은 고통, 슬픔,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먹고 소화하면서 직접 쓴맛을 맛보고, 순간들을 기억하여 현재에 재생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후대 사람들은 절기 음식을 통해 과거의 쓴맛을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의 기억을 갖게 된다.

 # 글을 마치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월절과 유월절에 먹는 음식을 알아봤다. 그들이 유월절에 음식으로 인생을 기억하고, 위로하고, 기념하는 방식은 우리도 모방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을 살며 힘든 날이 있을 때, 너무나도 기쁜 날이 있을 때 등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 주변 사람들과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특정 음식을 먹어 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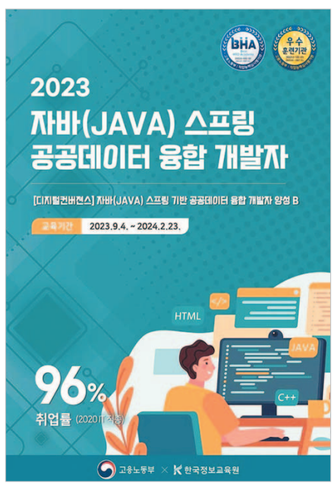
자료출처 :
영상－CGNTV 맛있는 성경속 음식 이야기
블로그－티스토리 풍선노리터
블로그－Penesees
하나님의 교회 지식사전 : 유월절

정은영 수습기자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2023년 고속도로 블랙박스 영상 공모전
- 접수기간 : 2023. 03. 17~2023. 06. 30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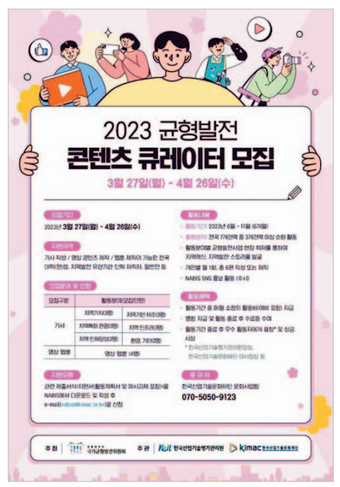
■리사이클링 스토리 공모&챌린지
- 접수기간 : 2023. 03. 20~2023. 04. 10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기획, 문학



■자바(JAVA) 스프링 기반 공공데이터 융합 개발자 양성 B 과정 훈련생 모집
- 접수기간 : 2023. 03. 20~2023. 09. 11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IT

■국립정동극장 청년 전통공연예술 인큐베이팅 사업 2023(청춘만발)
- 접수기간 : 2023. 03. 22~2023. 04. 16
- 응모대상 : 20세~35세, 청년 전통공연 예술인(개인 및 단체)
- 공모분야 : 공연/예술

■Let's Global Indie Game!
2023 인디크래프트 출품작 모집
- 접수기간 : 2023. 03. 23~2023. 04. 12
- 응모대상 : 챌린저부문 대학생
- 공모분야 : 게임



■2023 균형발전 콘텐츠 큐레이터 모집
- 접수기간 : 2023. 03. 27~2023. 04. 26
- 응모대상 : 대학생, 직장인/일반인
- 공모분야 : 언론, 영상, 웹툰, 기획/아이디어

■과학치안 소재·부품·장비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 2023. 04. 01~2023. 05. 31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과학, 공학/기획, 아이디어

■제 16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 접수기간 : 2023. 03. 27~2023. 04. 14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법, 봉사

■MG희망나눔 내집잡기 6기
- 접수기간 : 2023. 03. 20~2023. 04. 14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주거비 지원

■제1회 ㈜블레이드 미디어 드라마 극본 공모전
- 접수기간 : 2023. 04. 17~2023. 05. 04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작가, 기획, 아이디어

■PLC 현장기기 제어 전문가 양성과정
- 접수기간 : 2023. 03. 24~2023. 04. 21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기술

■2023 부산월드클래스 육성 10년 프로젝트
- 접수기간 : 2023. 05. 02~2023. 05. 15
- 응모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 공모분야 : 건축, 예술, 과학/기술 등